

"친구사이"는 보다 건전한 동성애 문화를 위한 남성들의 모임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에이즈 예방 및 퇴치운동 (에이즈 예방단체와 협력)
 - 동성애자 인권보호
- 동성애로 인한 고민상담
 - 친목도모
- 문화행사 및 소식지 발간
 - 기타

주소: 11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
전화: (02) 3141-7942

친구사이

소식지 제8호

- '95 친구사이 슬로건 - LOVE & PRIDE
- AIDS 특집
- 학술연구 - 아시아의 게이들, 그들의 정체성
- 어머니와 누나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 인물탐구 - 프리드리히 대왕
- 동성애 잡지 'OUT' 소개

인원	자료실
11	12

동성애 남성들을 위한 모임

“사랑과 자부심” Love & Pride

'95 친구사이 슬로건으로

올해 우리 '친구사이'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끝에 탄생한 '친구사이'가 지난 일년동안 동성애 권리의 부재의 땅인 우리 사회에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던졌습니다.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던 보수적인 우리 사회가 '친구사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동성애자의 삶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정하고,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음을 보면서 우리 모임의 앞날에는 더욱 더 많은 일들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동성애자로서의 밝은 삶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사회도 우리를 하나의 부분으로 인정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우리 서로서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자긍심을 가집시다.



친구사이 3대 회장 선출 모든 사람의 노력을 부탁

1995년2월 총회에서 친구사이의 3대 회장을 선출하였다. 문화부장으로 활동 중이던 '이림'씨가 3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당선소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부탁했다.

한편 작년 8월 이후 2대 회장으로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상민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당분간 못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림씨는 공석으로 남은 문화부장의 선출과 여러가지 당면한 숙제에 대해 조만간 임원진과 회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부회장인 오준수씨의 8월까지의 임기에는 변함이 없다.

바자회, 영화의 밤 준비중

친구사이 회원 MT도 열릴 예정

친구사이에서는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달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MT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반기중에 종로에서 바자회를 열 계획입니다. 동성애 해방을 상징하는 분홍색 삼각형 무늬등을 넣은 T셔츠나 뺨지, 책, 기타 여러가지 물품을 마련해서 '친구사이'와 '에이즈연맹', '끼리끼리' 공동주최로 바자회를 열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과 일정은 각 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4월말에는 작년에 이어 '영화의 밤'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영화의 밤에는 "Longtime companion"이라는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조만간 소식지나 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은 동성애자들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없으면 결코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무부 주최로 격주마다 열리는 동성애 관련 필름 시사회가 지난 1월, 2월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간 상영한 필름은 "파리는 불타고 있다", "광란자", "파워 오브 원", "Making Love" 등이었습니다.

친구사이 발간 동성애 수기집 "이젠 더 이상 슬프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가 여러분의 성원으로 3월중에 재판을 찍게 되었습니다. 서점 배포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배포가 모두 이루어져 신간수 필코너에서 쉽게 구입 또는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상봉시의 버스터미널 등의 가판대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구사이 법인등록, Cable TV Program 제작, Gay & Lesbian Film Festival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친구사이' 연혁

일	시	내	용
1993년	12월	초동회(친구사이 전신) 발기 건의	
1994년	1월 25일	소식지 '초동회' 제 1호 발간	
1994년	2월 7일	초동회에서 분리 '친구사이' 발족	
1994년	3월	제 2호 소식지 '친구사이' 발간	
1994년	4월 16일	세미나 개최 (종교, 인권, 학계 등 인사 초청)	
1994년	4월 24일	'친구사이' 첫야유회 개최 마석 수동캠프	
1994년	5월 1일	영화의 밤 개최 일본 동성애영화 '오코게' 상영	
1994년	7월	KBS TV '추적 60분' 출연 7월 31일 방영	
1994년	8월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터뷰	
1994년	8월13 14일	代회원 여름캠프 을왕리 해수욕장 1박 2일	
1994년	8월 27일	제 2기 회장단 선출	
1994년	9월	시사주간지 '길' 외 다수의 매거진에 인터뷰	
		일요신문, 일요서울, 레이디경향, 여성중앙,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1994년	9월 11일	사무실 이전 마포구 연남동 소재	
1994년	10월 2일	'친구사이' 체육대회 안양천 고수부지	
1994년	10월 9일	MBC FM '김한길의 MBC 초대석' 출연 10월 10일 방송	
1994년	11월	외대교지 인터뷰 '원손잡이와 오른손잡이는 다르지 않다'	
1994년	12월 24일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수기집 '이젠 더 이상 슬프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발간	
1995년	1월	수기집 광고를 위한 인터뷰	
		시사저널 1월호, 동아일보 1월 15일자, 선경그룹(지성과 패기)1월호, 일요서울 1월25일자, 여성동아, 현 2월호 등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과연 우리를 수용할 만한 포용력 있는 사회인가..
언제나 벽은 존재하지만 그 벽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SOCIETY



GAY

여성동성애자 모임 <끼리끼리>에서 뜻을 같이할 분들을 찾습니다.

호출: 015-217-4179 발신자 전화번호 + 79 전해성
주소: 우편번호 110-618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끼리끼리" 앞
상담편지와 상담전화도 기다립니다.

AIDS AIDS AIDS AIDS AIDS !



미 컨트리 가수들 에이즈 예방 나섰다.

'섹스 파트너와 잘 때는 항상 그의 과거와 함께 잔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 문구는 '침묵에서 깨어나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의 컨트리 가수들이 벌이고 있는 에이즈 예방광고 문안 가운데 하나다.

가수 브룩스, 빈스 길, 조니 캐시, 위노나 주드, 돌리 파튼과 윌리 넬슨등 익히 우리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당대의 컨트리 가수들이 모여 AIDS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광고를 TV와 라디오에 방송하면서 재미와 위트를 곁들인 문안들로 사용하는 것.

컨트리가수들은 그들 특유의 시원스런 목소리로 '1백번이라도 콘돔착용은 의무사항이다', 'AIDS는 동성애자, 약물중독자, 대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이며 바로 당신의 저승길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AIDS는 입맞춤으로 전염 안된다

아직 입맞춤으로 AIDS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그 이유중 최소한 한가지가 미국과학자의 연구로 밝혀졌다.

미국 국립치과연구소의 테시 맥닐리 박사는 사람의 타액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AIDS를 일으키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의 백혈구 감염을 차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맥닐리 박사는 지난 달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미생물학회 주최 AIDS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분비성백혈구단백분해효소억제인자(SLPI)라고 불리는 타액속의 단백질이 백혈구에 달라붙어 HIV의 침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맥닐리 박사는 SLPI의 발견으로 AIDS 치료제 연구에 새로운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HIV가 백혈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SLPI를 직접 혈액속에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DS환자 얼마나 살 수 있나?

에이즈에 감염되면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불치의 병 에이즈에 감염되면 짧게는 몇개월 내에도 죽음을 맞게된다. 그러나 건강한 장기 생존자도 적지않아 이들이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AP통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했으며 요즘은 하루 평균 1백명이 에이즈로 사망하는 추세이다. 통계상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의 12%가 감염 후 5년 이내에 발병한다. 그런데 감염자의 50% 가량은 감염 후 10년이 된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자의 30%는 14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 감염자의 10-17%는 감염 후 20년이상 생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들은 감염사실을 알게 되면 식사조절, 비타민섭취, 약물복용, 운동 등을 통해 몸을 단련한다.

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의 에이즈연구자들은 불행히도 이같은 노력이 에이즈 감염자의 장기생존이유와는 상관없다고 전한다. 대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가장 타당한 장기 생존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한다.

첫째 그들은 면역체계가 좀더 강하다. 둘째 그들은 유전적으로 다르다. 셋째 그들은 좀더 순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지난 80년대부터 에이즈 감염자 약 5천명을 대상으로 장기생존이유를 연구해온 미국 국립보건기구에 따르면 감염자중의 일부는 백혈구의 일종인 T세포, 또는 CD4라 부르는 혈구의 감소가 감염후에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사람의 CD4세포수는 1평방mm당 약 1천개이고 에이즈에 감염되면 이것이 2백개까지 떨어져 곧 발병을 하게 되지만 일부감염자는 8백개수준으로 떨어진 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 주부들 콘돔사용확산

에이즈의 확산으로 남편마저도 불신하고 있는 태국 가정주부들 사이에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15일 태국의학협회에 따르면 태국에서의 에이즈는 전문매춘여성이나, 마사지걸, 캅테일 라운지걸, 동성애자 등 이른바 위험집단의 차원을 넘어 군인, 학생, 공무원, 회사원, 농민, 승려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 주부들은 남편으로부터의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해 여성용 콘돔을 착용하거나 남편에게도 콘돔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의학자들은 최근 전국 병원에서 에이즈 보균자로 진단받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감

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 전파의 주범은 90% 이상이 바로 남편들이었다고 밝히고 이들 남편은 여러명의 이성 또는 동성의 섹스파트너를 갖고 있거나 마사지 팸러나 윤락가를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

의학자들은 에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모두 1명의 섹스파트너만 갖는 등 섹스관행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특히 남편들이 외에도 에이즈균을 묻혀오지 말것을 당부.



안전한 성생활은 이렇게

금욕: 섹스에 대한 절제가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성병예방의 최선책.

콘돔사용: 모든 성해위시 항상 콘돔을 사용할 것. 재사용 불가. 윤활제는 수용성(K-Y 젤, 물, 무보균자의 침)을 사용, 바셀린, 베이비오일, 로션 등 유용성 제품으로 만든 윤활제는 콘돔의 고무성분을 녹일 위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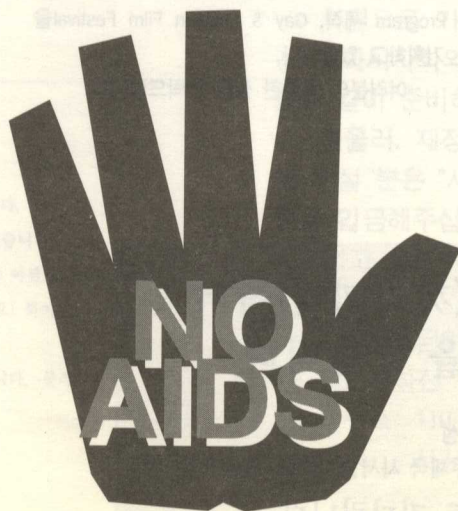
싱글 섹스 파트너: 서로 1사람만의 섹스 파트너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당연하다.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처럼 위험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병 또는 HIV 검사를 받고 6개월 후 재검사를 받도록.

NO 항문섹스: 가장 위험한 성행위, 직장과 항문의 손상되기 쉬운 혈관이 파열될 경우 HIV는 혈액속으로 직결된다.

섹스상대에게 이런 것은 확인하자!

물론 상대가 솔직한 대답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도 접촉하기 전에 서로 상대방의 과거 성적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시작하라.

- # 에이즈 바이러스나 성병감염 여부를 검사받은 적이 있는가?
- # 섹스상대는 몇명인가?
- # 에이즈를 두려워하는가?
- # 항문성교를 한 경험이 있는가?



TRUE LOVE FREE SEX

에이즈 예방은

진실한 사랑에서

전국 AIDS 상담/검사기관 전화번호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실
02-380-1696~8

전국 각 국립검역소

서울 02-664-9401~4

부산 051-463-3501~2

인천 032-883-7502~3

군산 0654-445-4239

목포 0631-44-0941

여수 0662-62-2367

충무 0557-645-3597

마산 0551-46-2443

김해 051-973-1922

울산 0522-61-7092

포항 0562-47-2713

동해 0394-522-5952

제주 064-58-3859

한국 AIDS 연맹

02-747-4070~2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02-604-7007

부산 051-553-6611

대구 053-754-0203

인천 032-884-0330

경기 0331-44-8228

강원 0361-51-4400

충북 0431-233-1100

충남 042-523-0660

전북 0652-75-0020

전남 062-363-4040

경북 053-953-0313

경남 0551-42-0066

제주 064-47-1121

기타 각 보건소

학술연구

아시아의 게이들, 그들의 정체성

Q&A

이 글은 호주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게이 저널 (아웃레이지 Outrage)의 94년 10월호에 실린 테니스 알트만 (Denis Altman)의 글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테니스 알트만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좌파 게이정치학자로 (미국의 동성애화 그리고 동성애의 미국화)라는 저서로 유명하다. 이 글의 원 제목은 <쌀과 감자의 여왕들에 관하여>로 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이 공동체가 서구의 게이들(특히 호주 지역의 백인 게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반성적으로 되짚어 보는 글이다. 이 글이 백인 게이들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 게이들에 대해 품고 있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반성하도록 촉구한다는 점에서 백인 게이 독자들을 위한 글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얼마간 의미있는 대목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지역의 이민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고난 후 벌어지는 인종차별적 착취가 우리를 비롯하게 하듯이, 우리들 역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의 게이들에 대해 이와 유사한 인종차별적인 이데올로기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방콕이나 발리 지역은 이성애자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게이들에게도 역시 섹스관광의 명소이다. 그리고 그곳을 이미 가보았든 가보지 않았든 우리에게 얼마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의 게이들에 대해 가상의 정체성이 구성되어 있다. 모쪼록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그들 자신이 선택하고 구성한 정체성인지를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번역자 동진 -

내가 최근호 아웃레이지에서 평론한 바 있는 (스파르타쿠스 가이드) (게이관광안내책자의 일종 - 역자 주)이란 책의 표지사진에서 보듯, 이미 아시아지역의 곳곳에서 새롭게 게이공동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태국말고도 별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도 서서히 게이공동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많은 수의 호주 게이들이 방콕과 마닐라를 방문하고 있고, 또 역으로 아시아지역의 게이들이 주말여행차 호주를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마디 그라스 축제 Mardi Gras festival(뉴욕에서 개최되는 스톤 율봉기 기념 집회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게이국제행사로 앞의 집회와는 달리 리우의 삼바축제와 같은 예술적이고 오락적인 축제의 성격이 강하다 - 역자 주)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를 세일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린다.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서구에서 뜻하는 바와 흡사한 게이들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자카르타나 서울의 중심가에 옥스포드가(시드니의 유명한 게이공동체가 있는 거리의 이름 - 역자 주)와 흡사한 것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으로 보인다. 사실 "게이"라는 말은 점차 타 언어권 내로 퍼져나가면서 널리 쓰이게 된 서구의 용어이다. 그런 점에서 그 말이 서구적 성관념을 상징하는 만큼이나 그 말은 정체성에 대한 "근대적인 modern"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호주의 게이들이 갖는 자기 스스로의 게이적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아시아의 게이들이 갖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갖는 생각과 동일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아시아지역의 곳곳에서 게이공동체들이 만들어졌다. 상업적 성장 때문이나 HIV/AIDS에 대한 대응때문인, 아니면 정치적 자유의 확대 때문인든 여하튼 이들 지역에서 게이공동체들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게이공동체의 등장을 우리(서구의 게이들 - 아래에도 같음/역자 주)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이들 지역에서 게이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정체성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에 수반하여 우리같은 상업적, 사회적, 정치적 세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미 아시아의 몇몇 도시에서 등장한 '게이 씬 gay scene(특히 방콕의 사우나나 발리의 디스코 텍등)'은 이미 서구의 게이 씬과 경쟁을 벌일만큼 서구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서구인들과 아시아의 게이들 간의 상호관계는 상당히 불평등하게 맺어져왔다. 인종적으로 유럽인인 호주 게이들은 자신들의 성적 낙원을 구가하면서 발전도상국의 젊은 게이집단과 재미를 누려왔다. 하지만 이런 낙원은 사실 유럽의 방문객들과 '원주민 청소년들' 사이의 심각한 권력과 부의 불균형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사정은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흐름의 자기 주장이 등장하면서 도전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동료들은 "아시아의 권리회복"을 외치면서 자기네 나라의 게이들에게 백인들을 성적 파트너로 삼기를 거부하라고 주장한다. 아시아의 게이들은 모두 젊고, 수동적이며, 유

약한 반면, 서구의 게이들은 부유하고 능동적이며 나이를 먹었다는 우리들의 통념은 이제 점점 흔들리고 있다. 아시아의 게이들은 더이상 드랙 퀸이 아니라 라이스 퀸, 혹은 포테이토 퀸으로서, 자신들이 창출한 게이들의 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아시아인들과의 관계에 연연중 스며들어 있는 인종 차별주의라는 문제를 재고할 계제에 직면했다. 물론 아시아인들이 서구인들과의 성적 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리도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그들의 주장은 성적인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와 경제적 동태에 대해 반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게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홍콩과 인도에서는 게이영화축제가 열렸고, 필리핀에서는 게이문학이 '등장하고 있으며, '분홍빛 삼각형'과 '도서관 기금'이라는 단체가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요코하마에서 국제 HIV/AIDS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게이단체인 오커의 멤버들이 참석해 당당히 자신들이 게이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더우기 이들은 그 회의 개최시 때, 일본 황태자와 똑같은 단상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이제 아시아의 게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서구적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정에 맞는 또 다른 판본의 게이 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 과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사안들이 우리와 같을 수는 없을 터이다. 이미 우리는 "당신네들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있다. 이제 호주에서도 아시아 태생이거나 조상이 아시아인인 게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게이공동체는 여러 특수한 방식들을 통해 인종주의와 앵글로중심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인정되지도 또 파헤쳐지지도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만일 우리가 게이 호주인과 아시아의 벗들 사이에 의미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는 미국을 게이적 삶의 유일한 모델로 간주하던 우리의 통념도 얼마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끝>

Q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 남성입니다. 동성애 성향은 어릴적부터 있었으며 우연히 알게 된 낙원동문화를 통해 사우나 여러곳을 알게되어 1주일에 한두번씩 가곤 합니다.

그곳에 갔다가 나올 때는 들어갈때보다 훨씬 더 허전하고 때론 비참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왠지 가장 편한 삶의 방식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다운 사랑을 하고 싶은데...

A 사우나에서의 맹목적 Sex를 반대하는 개인적 소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을 거는 죽음의 모험행위입니다. Gay가 Gay를 가장 쉽게 만나서 '육체적 스트레스(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납니다.)'를 가장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Gay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우나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밀폐된 공간에서 거의 형상조차 알아볼 수 없는 타인과의 관계(Sex)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각종 성병은 물론, Anal Sex를 할 경우에는 AIDS에도 걸릴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둘째, 이 사회에서의 우리의 성위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나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Gay의 사우나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까지 용납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Gay문화의 주인공은 바로 Gay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몫을 찾으려면,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높이려면 우리 스스로 동성애의 성도덕성 회복에 한층 더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피나는 절제와 노력이 따라야 하므로 많은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런 컴컴한 휴게실에서 우리 스스로 안주해버리고 자학의 길을 되풀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셋째, Sex없는 사랑은 공허하다고 하지만, 사랑없는 Sex는 더욱 허무할 뿐입니다.

육체적 만족과 쾌락을 느꼈다고 해서 Gay만이 느끼는 정신과 마음의 피로를 과연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Sex는 그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Sex만을 위해 사우나를 습관적으로 찾게되고 깊이 계속 빠져들다보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진정한 사랑을 할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SM>

(*친구사이 사무실에 이런 문제로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앞에 서술한 답변은 질문자 한 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톤월 항쟁 25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 재미 한인애국단체인 회원들의 모습 <1994.6.27 주에>

친구사이에서는 동성애 또는 AIDS로 인한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지, 전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상담전화 : (02) 3141-7942
 상담시간 : 오후 8시 - 11시까지
 상담주소 : 11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
 친구사이 Q/A 담당자 앞

푸른
편지

친구사이 편집인께

소식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동봉한 책은 전화로 말씀드렸던 그 책입니다. 짧지만 p.114에 '친구사이' 관련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만 복사해 보내려다가 다음 기사 ('남녀 모두하려는, 성을 뛰어넘으려는')나 뒷부분의 기사 ('에이즈와 법과 기본권') 등이 연관이 있을 듯 싶어 통째로 보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사이'의 발간 의도나 용기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낼 때 차라리 안전하고 건전하지 않을까요. 그간 마스크에서 보여준 동성애자들의 행태는 정말 난잡했습니다. 역 화장실의 구멍, 파트너를 찾아 헤메는 야간 공원 풍경, 회개(?)한 동성애자의 엄청난 고백.....

동생이 저런 것을 하며 돌아다닐꺼라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더군요. 하지만 '추적 60분'에서 보여준 어떤 커플 얘기는 저의 기 안심을 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생긴 두 청년의 동거생활이었는데 서로에게 충실하면서 각자의 직업(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고 기억됩니다)에서도 한 몫을 하는, 지극히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런 커플만 있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사이'에서 주창하는 동성애도 바로 그런 것이겠지요.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결실을 볼 수 있는 이성간이면 더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아요. 더 이상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동생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남들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비정상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비겁한 짓이지요. 아직 동성애자들이 큰 목소리를 못내는 것을 빌미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려는 것은.

이차피 동성애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친구사이'처럼 드러난 형태였음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것 잘 받아 두었다가 동생이 돌아오면 바로 보여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소식지도 받아보고 싶군요. 그외에, 제가 동생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도 등돌린 가족들을 대신해 그의 의지가 될 수 있게 동성애 상식들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 잡지등을 얻을 순 없을까요?

약간의 성의를 동봉합니다.

<동성애자를 동생으로 둔 어떤 누나로부터...>

이번 푸른편지년에 실린 두편의 글은 친구사이 앞으로 온, 동성애자를 동성애와 자식으로 둔 어떤 누나와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사랑을 노래한 어떠한 시보다도 감동적인 편지이기에 허락없이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간직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옆에는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사이 친구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먼저 토해내야 할지 말문이 쉽게 트이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께서 느끼시는 고통 또한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되겠지요.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기회로 삼아야겠지요.

저 역시 제 아들의 이야기를 부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이해도 할 수 있었지만 순수한 영혼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할까 무엇보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부모 역할도 제대로 못한 제가 제 아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제 명예, 가문 그 따위것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자기 자신의 위치는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여러가지 개인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욕구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래도 친구사이란 단체는 순수한 친구들이 자기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 모인 모임이라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사이의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면 달려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 아들을 위해서만은 아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받아야 하는 따가운 시선이 결코 여러분들을 관용하지 않을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미국에서 달려와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혼이는 1년 가까이 혼자서 정신과 출입을 하였더군요. 얼마나 큰 고통처럼 느꼈으면 부모 몰래 혼자서 그 큰일을 치러야만 했는지 그 사실이 이 못난 엄마를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게 만든답니다. 항상 기쁨을 주던 아이, 자신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아이였는데. 엄마가 챙겨주기보다는 이 못난 엄마를 챙겨주던 착하고 순수하기만 했던 영혼.

전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희 아들과 같은 고통을 맞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값지고 순수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요. 결코 좌절하지 말고 자신들의 능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열심히 발휘하여 멋진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족의 고마움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아무리 이해 못하신다 하더라도 부모들은 이해할 수 밖에 없으니깐요.

지금 저희 아들도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없이 살아왔기에 이렇게 스스로없이 자신의 위치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몇몇이 저희 아들을 받아들일수 있는 것입니다. 전 제 아들과 여러분을 믿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요. 항상 서로를 감싸고 아끼고 기쁘게 살아요.

친구사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저의 아들입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다면 연락주시고 부탁하십시오.

이제부터 해쳐나가야 할 어려움을 슬기롭게 한가족처럼 한형제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고민을 의논하십시오. 더 이상의 고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 못난 엄마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가족 몰래 겪은 고통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원망마시고 이 엄마가 여러분을 인정할 테니 다른 생각 결코 갖지 말구요. 제 아들은 죽음까지 생각해 유서까지도 써놓았더군요. 여러분 결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고 그 용기로 당당하게 자신을 개척하고 노력하세요. 그것만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깐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마음이 진정되는대로 여러분에게 자주 연락하지요. 항상 건강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못난 엄마의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행운이 깃들길.

한글이 어색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동성애자를 아들로 둔 어떤 어머니로부터..>

도자의 나

독자의 난에 평소 여러분이 '친구사이'나 사회에 바라는 점, 혹은 고쳐나 가야 되겠다고 느끼는 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친구사이와 '고정관념'

우리 모두는 일정한 관념을 갖고 살아간다. 남자는 어떠해야 한다든지, 여자는 어떠해야 한다든지 하는 고정관념은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쉽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삶의 곳곳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념들로 가득차 있다. 푸코라는 사람은 장(Field)과 역사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굳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태초의 자연스러움을 부여받은 사물들과 관념들을 해체하려는 노력에 일평생을 바치기도 했다. 자연스러움을 벗어던지자는 것, 그것은 하나의 판단기준과 가치기준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본연적인 동시에 해방적인 행위이다.

친구사이를 드나들면서 나는 꽤나 당황했다. 그것은 아주 우스운 것이었다. 나는 참 자신이 있었다고나 할까? 적어도 동성애자들을 동물원 원숭이 보듯 하지는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성행위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도 충격받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결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믿음이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내 자신이 진보적이고 열려 있으리라는 믿음. 적어도 사랑의 방식, 성의 방식으로 다름을 강조하고 배타시키는 인간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다. 어쩌면 나는 그것을 내 가장 크면서도 은밀한 장점으로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아주 우스운 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친구사이 회원들은 매우 사소하면서도 집요하게 나를 당황시켰다. 나는 그런 남자들을 본 적이 없었다. 요리를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남자들, 순정만화를 '제집에처럼', 욕하지 않고 아주 편하게 읽는 남자들, 나는 이런 남자들을 접해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내 남자친구들도 남자에 대해 별 차별을 두지 않는 이들이었지만, 나는 한번도 그들이 일반적인 남성의 행동양태를 벗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남성성을 강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이성성에 가까운 행동을 한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들과 달리 친구사이 사람들은 참으로 달랐다. 그렇다고 내가 흔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친구사이 사람들이 여성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은 어느 쪽의 행동에도 거리낌이 없었고 불편해하지 않았다.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라는 타이틀에는 하나도 충격먹지 않으면서 친구사이분들의 그런 아주 사소한 행동에 나는 당황했다. 이성애 중심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형성된 '남자'라는 인간에 대한 내 자연스러운 관념은 매우 강고한 것이었다. 나는 그걸 너무 우습게 봤고 이제야 내 자신이 매우 편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게 그리 슬프거나 기분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그것이 날 더 열어줄테니까 하고 기대한다. 아마 친구사이분들과의 만남은 내게 많은 질문들과 자극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단지 그게 일방적으로 내게로만 기울어진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3차학기 최선욱>

젊은층 갈수록 동성애에 개방적
여학생이 더 긍정적

최근 '에이즈퇴치를 위한 한국 시민모임'이 서울시내 대학생 3백90명(남2백명, 여1백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29.5%만이 '무조건 나쁘다'고 대답한데 반해 '인간의 감정은 복잡한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인정한다'가 10%, '부분적으로 찬성한다'가 60.5%나 돼 동성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 '무조건 나쁘다'가 57.1%, '절대적인정'이 10.8%, '부분적 찬성'이 32.1%로 여학생들에 비해 동성애를 터부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동성애를 느껴본 적이 있는나'는 질문에는 '없다'가 62.4%로 많았지만 '있다'도 37.6%나 돼 동성애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님을 나타냈다.

또 동성애를 느껴봤다고 대답한 학생들중 그 대상으로는 대학교 친구가 40.1%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는 31.9%였다. 또 활발하고 쾌활한 친구만 보면 동성애를 느낀다는 학생은 21%였으며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에게서도 동성애를 느낀다는 사람이 7%였다. 누군가에게서 동성애를 느꼈을때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결하고 창피하므로 아무도 모르게 숨긴다'가 32.8%, '별 생각 없이 잊으려고 노력한다'가 30.7%, '상담을 갖는다'가 21.8%, '동성애를 느낀 상대에게 솔직히 이야기한다'가 14.7%였다.

이와 반대로 친구가 자신에게 동성애를 느낀다고 고백해왔을 때의 반응으로는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당연히 멀리한다.'가 남 55.7% - 여 21.2%, '조금은 이해하지만 멀리한다.'가 남 31.8% - 여41.5%, '이해하므로 현재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지낸다'가 남12.5% - 여37.3%로 역시 여학생이 동성애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친구가 아닌, 낯선 동성연애자가 자신에게 접근해올때의 반응은 '도망간다'가 남62.3% - 여41.2%, '이야기만 하고 헤어진다' 남23.4% - 여52.5%, '마음에 들면 갈데까지 가본다' 남 14.3% - 여6.3%로 남녀비율은 위의 항목과 비슷했으나 친구에 비해서는 더 거부감을 나타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물음에는 '처음 듣는다'와 '있다는 건 알고 있다'가 가장 많았으나 피닉스, 친구사이, 레스피아, 초동회, 김씨가, 스파타커스 등 모임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학생도 남 15.2%, 여8.7%나 됐다.

에이즈퇴치를 위한 시민모임의 구자준의 장은 '설문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생각도 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필 상담전화를 받으며

"때르르릉....."
"예, 친구사이입니다."
<잠시 침묵>
"편하게 생각하시고 상담해 주십시오."
"딸깍(전화 끊는 소리)"

하루에도 이런 전화가 수없이 걸려온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까지 자신을 털어놓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이다.

작년 8월 설레이는 가슴으로, 떨리는 손으로 '친구사이'에 전화를 최초로 걸었던 기억이 난다. 무슨 말을 해야할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편안함을 주는 그의 목소리에 그분도 평범한 우리의 친구요, 이웃임을 느꼈다. 사실 4개월간 상담전화를 받으며 느낀 점은 어떤 특별한 고민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보다는 인간적 외로움, 단절감, 소외감, 자책감을 호소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일반과는 다른 성향으로 가슴앓이하는 분이 수없이 많음을 느끼며 '친구사이'는 그들의 희망이요, 등불이 되어야함을 느꼈다. 상담자들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부분을 고백함으로써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한다.

가장 미안한 부분은 애인을 구하고 싶다는 등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짝사랑으로 끝내야하는 가슴 아픈 사연은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것이다.

"목소리가 마음에 드는데 한번만 만나주실래요?"
"전화받는 분은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Phone-sex 하시래요?"
상담전화를 받으면서 가장 실망스런 부분이 다. 우리가 성급하게 외모만으로 상대를 고르

려 잘못된 애정관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최근의 경향은 서울보다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서울은 Gay들의 공간(만족스럽지는 못해도)이 많은 편이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Gay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혼자 끙끙 앓다가 잡지에 난 기사를 읽고 비로소 자신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 존재함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가슴은 쿵쿵될 수 밖에 없다. 용기를 내어 잡지사 편집실에 전화번호를 문의할 때 그들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슨 말로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만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직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4분의 3 정도는 20대이고, Aids에 대한 상담은 경각심이 높고 홍보가 잘된 덕에 적은 편이지만, 아직 잘못된 성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았다. 가령 "정액이 몸에 닿으면 위험합니까?" "Oral sex를 하면 Aids에 걸리나요?" 등의 성지식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Gay공간에 대해 모르거나 가본 적이 있지만 실패했거나, 또는 선입견 때문에 두렵다는 내용이 많아 Gay업소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경향이 있음이 특이한 사실이었다. 이것으로 이미 종로, 신당동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이미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또 sex, 동거를 빌미로 금품을 절도, 요구당하거나 폭로의 협박에 시달리는 내용을 접했을 때 슬프고 비참해지는 심정이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배척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아껴주고 도와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을 때 진실한 사랑도 만날 수 있고, 개인의 행복도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홍>

Rimbaud Cafe advertisement featuring a photograph of a person and a map of the cafe's location. Text includes: 램보 (Rimbaud), Cafe, 766-7158, and a map showing the cafe's location near the intersection of Jongro 2-gil and Insa-dong.

이문탐구

Friedrich 대왕
(1712~1786)

소왕국 프로이센을 강대국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군주가 있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어려서부터 예술적 재능이 풍부하여 그의 Flute 연주실력은 Bach가 감탄할 정도였다 한다. 프랑스 가정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의 심성은 섬세하고 부드럽게 커나갔다. 그러나 父王 Friedrich Wilhelm 1세는 군인출신이라 엄하고 가부장적인 질서를 온 국민에게까지 강요하는 폭압적 통치를 택했다. 그래서 아들이 나약하게 커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악기연주를 금지시켰다. 그의 누나 Wilhelmina 역시 부왕을 미워하여 그를 비판하는 수기를 남겼을 정도였다. 상처입은 어린 왕자의 곁에는 하인 Hans von Käte가 있어 그를 어루만져주었다. 그는 Berlin이 숨

막히게 느껴졌다. 더 이상 한스와 Flute를 볼 수도 없었고, 프랑스시를 낭송할 수도 없었다. 한스와의 사랑을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는 외가댁인 영국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에 이른다. 1730년 국경 근처에서 군사들에게 잡혀 호랑이같은 부왕앞으로 끌려온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부왕은 왕자가 보는 앞에서 Hans를 교수형에 처했다. 그는 울며부며 부왕에게 매달렸으나 이미 부왕은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왕자는 Hans의 뺨에 눈물의 키스를 하며 용서를 빌었다. Hans는 "왕자님이 용서받으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죽어갔다. 프리드리히의 가슴엔 이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다. 곧 엘리자베스 크리스티나와 결혼을 명령받지만, 왕비의 침실은 항상 썰렁하였다. 1740년 드디어 부왕이 죽고 왕으로 즉위할 때부터 그는 오스트리아와 두번이나 전쟁을 치르며 강력한

군주로 부상하였다. 석탄이 많은 폴란드의 쉐레지엔을 빼앗고, 거대한 두 여왕(러시아의 엘리자베타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경쟁하여 프로이센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갔다. 그의 여성적인 심성이 없었다면, 여장부들과의 경쟁이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포츠담에 Rococo 양식으로 상수시 궁전을 지어 이곳을 학문과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Voltaire, Bach 등 당시의 유명한 문학, 철학, 예술가들이 초청되어 매일 밤 음악회와 문학의 밤이 진행되었다. 그가 주로 낭송한 시는 동성애에 대한 찬미와 외설로 가득차 있었고 상수시 궁전은 궁녀를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 미남시종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야말로 Gay들의 궁전이었다. <왕은 국가의 첫번째 하인>이라는 신조어라 국민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프로이센을 강대국의 대열에 올려놓은 그는 독일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면에 부왕에게 억압당하고 애인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그는 궁전의 이름도 불어로 Sans Saucis라 하여 정적이 없는 그런 생활을 원하는 등 인간적인 고뇌가 많은 불행한 왕이었다. 그의 사후 자녀가 없는 관계로 왕위는 조카에게 이어졌다.

대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중에 동성애자가 많다고들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사회풍토와 남성다움에 대한 비논리성과 허구로 인해 섬세한 감정을 타고나는 남성들은 수난과 억압속에 눈물 흘려야 했다. 지금도 상수시 궁전의 곳곳에는 그의 숨결이 배어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토론과 연애, 예술 활동은 독일 예술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원동력이었다고 할 것이다. <홍>

Cafe YOU

사랑이란 건 누군가를 위해서 혼자가 되는 일 혼자서 가야 하는 일

이젠 혼자가 되고 싶다 YOU! 너를 위하여.

YOU

수원역앞 매산시장 내 순대타운 옆건물 1층
TEL: (0331) 256-1025
카페 & 단란주점 **YOU**

종로 허리우드 극장앞, 스타 앞
매일밤 11:30-12:00 붓고 대기

잡지 “OUT” (미국)

1992년 말경 뉴욕거리를 걸으면서 OUT지 광고 포스터를 얼핏 본 기억이 난다. 잡지의 표지를 확대한 것이었는데 아주 신선하게 생긴 20대 여자가 예쁘게 미소짓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은 표지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난다. 그리고 처음 보았을 때 게이 잡지인 줄도 몰랐다. 이것은 잡지 이미지가 신선하긴 했지만 다소 평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점 때문에 내가 OUT지를 즐겨서 보지 않는가 싶다.

OUT지는 스물아홉살인 마이클 거퍼씨가 1992년에 구상한 게이와 레즈비언 생활잡지다. 기존의 흔히 팔리던 반은 정치,사회적이고 반은 포르노광고 같았던 미국의 일반 게이잡지와 달리, OUT지는 조금 더 보편적인 동성애자들의 생활과 흥미거리를 주제로 삼는 잡지다.

거퍼씨는 OUT지를 VANITY FAIR나 ESQUIRE지와 같은 일반 생활잡지와 비교한다. 이러한 잡지들과 크게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일반 사람들과 성취향이 다를지 몰라도 생활 방식은 크게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OUT지를 보면서 나는 존경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게이

와 레즈비언들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경우에 내가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이미 존경하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이다. 그중에 예를 들자면, 테니스 스타 MARTINA NAVRATILOVA, 가수 ELTON JOHN과 K. D. LANG,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다이버 GREG LOUGANIS와 수영선수 BRUCE HAYES, 미국 상의원 BARNEY FRANK,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TIM GILL (QUARK, INC.),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MARC JACOBS와 ISAAC MIZRAHI등이 있다. 뿐만아니라 OUT지를 통해서 게이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이가 아닌 많은 유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지 내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자부심이 생긴다.

OUT지는 중요하고 현실적인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정치 사회적 문제도 다루면서 시에 재미있고 건강한 동성애문화를 즐기는 도움을 주는 생활 정보가 많이 실려있다. 영화, 연극, 그리고, 음악등의 소개를 포함하여 여행, 패션, 음식, 그리고, 특별행사 소개등 풍부하다.

OUT지는 미국에 웬만한 대도시 가판대서 권당 3달러 95센트에 살 수 있는 유익한 이문화잡지이다. <Soon>

짧은 이야기

옆에 실린 광고는 미국 동성애잡지에 실린 광고중의 하나이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심볼들이 날라다니는 스크린세이버(컴퓨터 화면보호용 프로그램)의 선전인데 상품명이 의미심장하다. PRIDE SAVER!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와 일본 등의 동양권 선진국에서는 동성애를 주제로한 산업이 낱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발전의 바탕에는 더이상 동성애가 병이 아니라 단지 성경향의 하나일 뿐이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이상 동성애는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뽐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들도 용산이나 청계천의 소프트웨어전문점에서 이러한 동성애 관련 프로그램을 사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즐겨워하는 날이 올 것이다.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서...

Practice safe computing and protect your monitor!

PRIDE SAVER

Introducing the First Gay & Lesbian SCREEN SAVER

Make a statement without saying a word!

Over 30 different screen savers and wall-paper images included

Easy to install

Perfect for home or office

For Windows and Mac

Password protected

10% of profits donated to Gay & Lesbian causes

\$29.95

To order call: 800 841-8882

VISA/MasterCard/American Express accepted

Or send check or money order to PrideSaver, Box 1239, Santa Monica Blvd., West Hollywood, CA 90046-5912

OUT

SPECIAL ISSUE

ELECTION UPDATE: BALLOT BATTLES

HOLLYWOOD POWER

The Industry Comes Out

MOGUL MANAGER SANDY GALLIN by Jonathan Van Meter

AMANDA BEARSE STAR... WITH CHILD by Sue Carswell

PLUS: A roundup of film developments large and small, Jackie Collins, Herb Ritts, and Gloria Estefan

상 : OUT표지
중 : OUT지 기사
하 : OUT지 광고 - 나이가

RING

By Smile



<END>

Video Book

모리스(Maurice)

1909년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는 모리스는 그곳에서 클라이브를 만난다. 클라이브는 모리스의 동성애적 성향을 일깨워주고 3년간의 플라토닉한 사랑을 나누지만 사회적 통념에서 탈피할 수 없었던 클라이브는 모리스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결혼하게 된다. 친구에게 배반당한 모리스는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어느 날 클라이브 저택을 방문한 그는 사냥터 지기인 알렉을 만나게 되고 그와 정열적인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엄청난 신분의 차이 때문에 모리스의 마음엔 또 하나의 갈등이 싹트고 서로를 견제한다. 결국 모리스는 알렉과의 감

격적인 재회를 한다. 어제 모리스는 구시대적인 사회의 인습에서 철저히 탈피하려는 의지를 굳혀간다. 알렉과의 관계가 또 다시 일시적인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 모리스는 스스로의 정직한 감정이 가장 정당하다는 진실에 맞부딪치기로 한 것이다.

이 영화 모리스는 '전망 좋은 방' 하우스 앤드' 등으로 잘 알려진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1987년작인 영국영화이고 그 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주연남우상, 음악상을 수상했다. 몇 년 전에 개봉 예정이었던 이 영화가 국내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개봉되지 못하고 얼마전야 수입허가를 받았다. 지금은 비디오 테잎을 구해보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출시되리라 믿는다. <현수>

게이도둑의 神聖한 日記

장주네(Jean Genet)의 도둑일기
(Le journal du Voleur)

한국에는 처음으로 소개된 프랑스작가 장주네(1910~1986)의 '도둑일기'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극과 극은 통한다'는 상식적 진리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美와 善에 대한 개념, 전통적인 도덕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들, 예를들면 도둑질, 비열함, 배반, 매춘 등의 소재를 이용해서 장주네의 화려하면서도 솔직한 필체와 더불어 그의 독특한 우주관 안에서 더 큰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도둑놈이 되기로 결심한 내 생활의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

나의 게으름과 생긴 모습 때문에 메트레이 한 교도소로 가게 됐다.

나는 그곳에서 스물한 살 때까지 머물러야 했으며 그곳에서 도망쳐서는 5년 동안 전쟁수탈

을 받기위해 전투에 참가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흑인장교의 가방을 들고 도망쳐 버렸던 것이다.

나는 얼마간은 도둑질로 살았지만 매춘행위가 나의 무사태평한 성격에는 더 어울렸다."

-본문 중에서-

이 책의 번역자인 최복현씨가 권미에 실은 작품해설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장주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적잖게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든다. 단순히 장주네가 동성애자이며,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추한 생활과 행동을 미화하고 합리화시키려는 자서전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가 이야기에 사용하고 있는 신화를 이해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 즉,식물계,동물계,태양계,신계를 통한 전혀 다른 세계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신의 세계와 비교하며 이해한다면 폭넓은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줄곧 무라카미의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불루'나 오에겐자브로의 '절규'를 읽을 때와 비슷한 감흥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사물과 심리에 대한 하나하나의 묘

알립니다.

친구사이에서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동성애 주제의 다큐멘터리, 영화, 자료물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3141-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디오를 비치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사이>

사에 있어서 상상력이 그렸으며, 고정관념과는 벗어난 다른 세계를 통한 여러가지의 소재가 그러했다. 오에겐자브로의 '절규'에 나오는 한국계 일본인인 다카모가 주장하는 '괴물'과 장주네가 주장하는 '괴수(전설 속의 괴수)와의 일치는 아이러니컬하기까지 했다. 또한,세상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역시 두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기묘한 공통점이었다. 장주네의 '도둑일기'를 포함한 이러한 소설은 철저하게 세상과의 단절된 삶속에서 발견해내는 신비한 여러 인물들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의 나열을 통해서 여러가지의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

"그는 내 귀를 그냥 내버려 두는 대신 그는 짓궂게도 손가락으로 내 뺨과 이마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어느것도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다양한 얼굴을 나에게서 해 보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녀석이 하는대로 그냥 있었는데, 그가 하는 장난은 아직도 그에게서 비롯된 마음이 남아있다는 표시이기도 했다."

-본문 중에서-

장주네의 '도둑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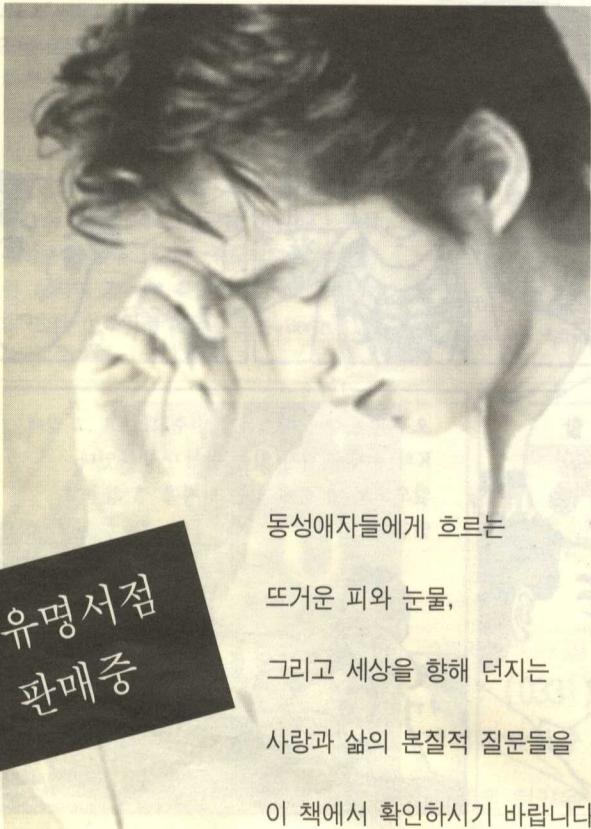
도 이 책이 나올 당시 동성애, 남창 등의 생활이 일반 프랑스인들에게는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나만이 갖는 성스러움이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 책을 발행한 용기이다. 장주네는 이 책으로 프랑스 문학계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용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바이다. 덕분에 사르트르와 장크도 등의 지성들로부터 '전통적인 도덕의 개념을 뒤집는 문학'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사르트르는 '성 주네, 희극배우 그리고 순교자(Saint,comedien et matyr)'라는 방대한 양의 작가론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단점이 될 수 있는 그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했으며,그 창조된 세계로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하고 있다.

장주네의 '도둑일기'는 불규칙하게 드나드는 그의 상상의 세계,즉 꿈을 꾸는 듯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펼쳐지는 상상의 세계는 다른 작가의 문학세계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장주네 자신만의 훌륭한 예술적인 면을 부각시켜 주었다. <SM>

열명의 동성애자들의 삶, 그리고 사랑과 좌절... 한국 최초의 동성애 수기집

“이젠 더 이상 슬프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동성애자들에게 흐르는

뜨거운 피와 눈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던지는

사랑과 삶의 본질적 질문들을

이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슬프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수기집 구입 방법

1. 대형 소매서점의 경우
 - 1) 수필집, 수기집 코너에 있습니다.
 - 2) 서점에 주문하면 총판에 의뢰하여 당연히 비치하여 줍니다.
예) 코엑스 내 서울문고 등
2. 소형 소매서점의 경우
 - 1) 소설, 비소설 코너중 비소설 코너에 있습니다.
 - 2) 없을 경우는 책구입가격을 지불하고 주문하면 1~3일 안에 비치하여 줍니다.
예) 지방동네서점
(매장이 작은 경우로 많은 수량의 도서를 비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기집 지역별 도매서점

서울지역 : 서울시내 각 유명 서점 및
 강남고속버스터미널 } 가판대 02-535-2443
 동서울터미널 }
 상봉터미널 }

경기 인천지역 : 서진서적 (인천 신항동) 032-762-7337
 청운서적 (안양 석수동) 0343-73-5312
 대동서점 (안양 안양동) 0343-47-8000
 동신서점 (구리 수택동) 0346-62-5838
 국민서적 (평택 평택동) 0333-53-0153

대전 충남북지역 : 충남서적 (대전 대흥동) 042-252-4457
 대훈서적 (대전 중동) 042-254-7001

광주 전남북지역 : 삼일서적 (광주 동명동) 062-224-9513
 광우서적 (광주 장동) 062-226-3518
 호남서적 (광주 동명동) 062-222-4020
 흥지서적 (전주 경원동) 0652-88-5311
 민중서적 (전주 경원동) 0652-88-2495

대구 경북지역 : 한국서적 (대구 삼덕2가) 053-421-6311
 한일서적 (대구 봉산동) 053-423-0781
 대구서점 (대구 포정동) 053-425-0661
 제일서적 (대구 동성로 3가) 053-425-0801
 학원사 (포항 대도동) 0562-83-4409
 경북서점 (포항 상원동) 0562-47-2717

부산 경남지역 : 한성서적 (부산 대청동) 051-462-5543
 한림서적 (부산 대청동) 051-462-3366
 동보서점 (부산 부전동) 051-803-8003
 영광서점 (부산 부전동) 051-809-9500
 문화서적 (울산 신정동) 0522-61-1286
 대신서적 (마산 오동동) 0551-44-0500
 문화서적 (마산 남성동) 0551-44-3335
 학문당서적 (마산 창동) 0551-46-2925
 학원서점 (마산 동성동) 0551-42-9981

* 각 지역별 도매, 대형서점 이외에도 책이 비치된 곳이 많습니다.

(전화, 우편주문 가능) **장자못 출판사**
전화: 453-7656~7 팩스: 453-7658

친구사이에서는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매번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 일을 못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실 수 있는 뜻있는 분을 찾습니다.
 친구사이로 연락바랍니다.

친구사이 전화번호는 (02) 3141-7942입니다.

전화를 통한 고민 상담, 에이즈 상담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토, 일요일은 3시부터)

**친구사이 주소는 (우) 11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입니다.
 많은 상담 전화, 많은 편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회원 및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친구사이는 건전한 동성애문화를 이룩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혐오감에 맞서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의 취지에 공감하고 활동하기를 원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동성애자는 3141-7942로 연락주시시오.

아름다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친구사이가 격주 주최하는 영화시사회와 소식지작성, 매스컴 홍보, 문화행사 등을 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사이에 도움을 주실 분은 "서울신학은행 38907-0951404 김철중" 앞으로 입금해주시시오. 후원자 여러분께는 우리 모임이 비치하고 있는 각종 자료물을 보내드립니다.

편집후기

이번 호부터 들어가는 편집후기는 아마도 고생하는 편집위원들의 넉두리의 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요. 그나저나 이번호 편집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을 옮기느라 힘들었고, 또 몇주간 대만A형 독감인지 B형 독감인지에 걸려서 너무나 아팠었고...
 하여튼 모든 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무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 조금씩만 더 노력하자구요! 화이팅! -상수-

I'm proud of being a GAY, 야호!! 우리 모두, 힘내고 삽시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석-

우와! 나도 신문만들었다. - CYI -

여럿이 같이 일을 해서 좋았다.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면 안될 것이 없다. - SS -

* 은행송금이 실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곤란하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소: 11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